##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8〉

### 怡山然禪師 發願文 (이산연선사 발원문) ②

修學一切法門 悉皆通達
수학일체법문 실개통달
廣作福慧 普利塵沙
광작복혜 보리진사
得六通之神通 圓一生之佛果然後
득육통지신통 원일생지불과연후
不捨法界 徧入塵勞
불사법계 편입진로
等觀菩之慈心 行普賢之願海
등관음지자심 행보현지원해

일체의 법문을 배우고 닦아 일체법에 다 통달 하고
널리 널리 복과 지혜를 지어 티끌 모래같이 많은 중생을 두루 이롭게하며
육신통을 얻고 일생 일대사의 불과를 원만 성취한 연후에
중중무진 법계를 외면치 않고 두루 티끌세상의 노고에 몸을 나투어
관음보살의 자비심과 한가지로 마음을 내고 보현보살의 바다같은 행원대로 같이 행하게 하소서.

他方此界 逐類殊形 應現色身 演揚妙法
타방차계 축류수형 응현색신 연양묘법
泥犁苦趣 餓鬼道中
니려고취 아귀도중
或放大光明 或現諸神變
혹방대광명 혹현제신변
其有見我相 乃至聞我名
기유견아상 내지문아명
皆發菩提心 永出輪迴苦
개발보리심 영출윤회고
火湯氷河之地 變作香林
화탕빙하지지 변작향림
飲銅食鐵之徒 化生淨土
음동식철지도 화생정토

저 세상 이 세상 일체세계에 갖가지 중생류의 모양을 따라 색신을 나투어서 묘법을 널리 가르치고 떨치며
끝없는 고통의 진흙 밭을 가는 지옥세계와 아귀도 가운데서
혹은 대광명을 발하고 혹은 모든 신통변화를 나타내어서
나의 상을 보거나 나의 이름을 듣게 됨에
모두 다 보리심을 내어 영원히 윤회고에서 벗어나고
화탕지옥·빙하지옥은 향림으로 변화며 끓는 구리즙·뜨거운 쇠를 먹어야 하는 지옥무리는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소서.

披毛戴角 負債含怨 盡罷辛酸 咸落利樂
피모대각 부채함원 진파신산 함점리락
疾疫世而 現爲藥草 救療沈痾
질역세이 현위약초 구료침아
飢饉時而 化作稻粱 濟諸貧餒
기근시이 화작도량 제제빈뇌
我願無窮 情與無情 同圓種智
아원무궁 정여무정 동원종지

털가진 짐승·뿔달린 짐승들과 원수맺고 빚진이들은 모두 신산고초에서 벗어나 다 함께 고루 복락을 누리며
모진 질병이 나타나면 변현하고 약초가 되어 고질병을 치료케 하고
기근이 들 때는 작물로 화하여 모든 이의 굶주림을 제도하게 하옵소서.
저의 원은 다함이 없나이다. 유정과 무정이 다 같이 일체 종지를 원만히 이루게 하소서.

### 山谷居士黃太史發願文 (산곡거사황태사발원문) ①

昔者 師子王 白淨法 爲身
석자 사자왕 백정법 위신
勝義空谷中 奮迅及哮吼
승의공곡중 분신급효후
念弓明利箭 被以慈哀甲
념궁명리전 피이자애갑
忍力不動搖 直破魔王軍
인력부동요 직파마왕군
三昧常娛樂 甘露爲美食
삼매삼오락 감로위미식
解脫味爲漿 遊戲於三乘
해탈미위장 유희어삼승
安住一切智 轉無上法輪
안주일체지 전무상법륜
我今 稱揚稱性實語
아금 칭양칭성실어
以身口意 籌量觀察 如實懺悔
이신구의 주량관찰 여실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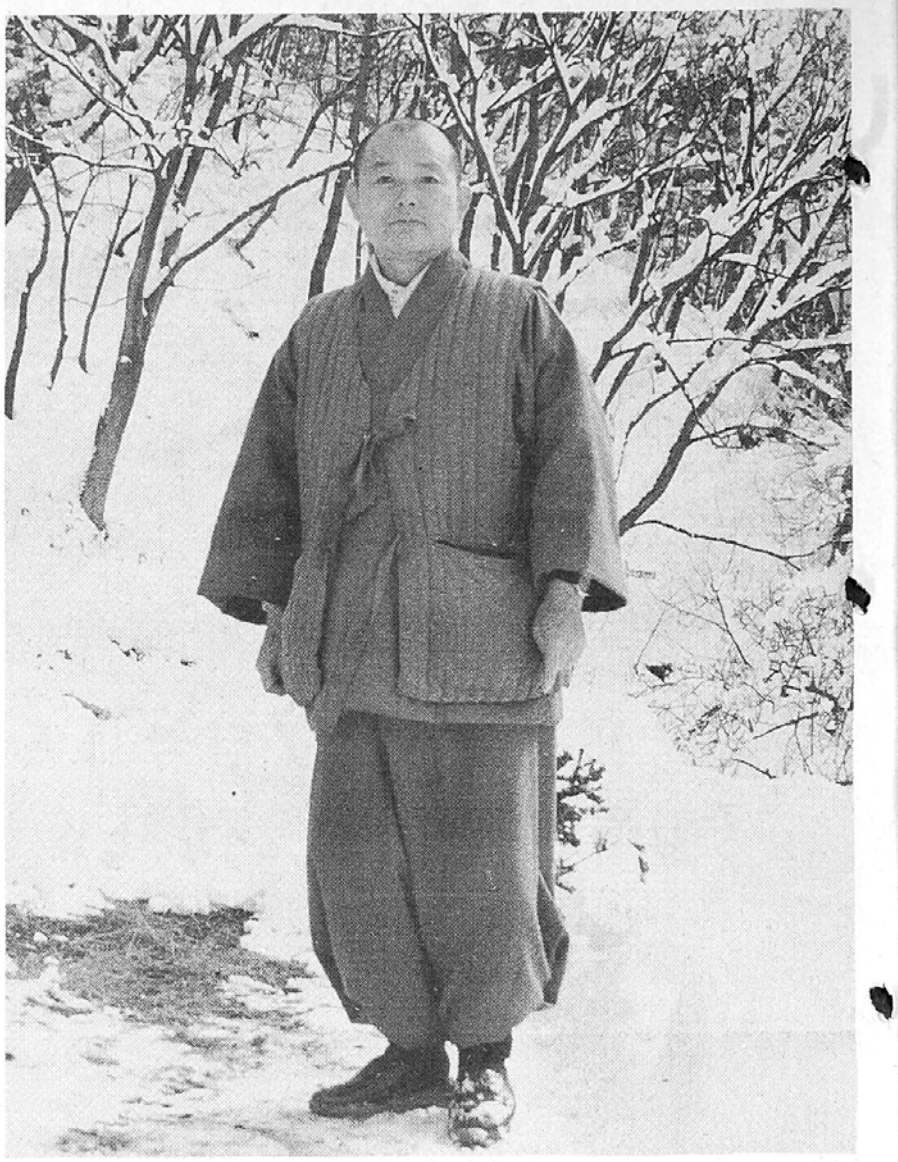
옛적에 부처님께서 위없는 청정미묘법으로 몸을 삼고
수승한 지혜·걸림없는 적정 삼매의 경지에 들어 분신한 사자후를 하시며
날카로운 지혜의 활과 화살에 자애의 갑옷을 입으사
한치의 흔들림이 없으매 바로 마왕의 권속을 깨뜨리시니
삼매 가운데 항상 열락을 즐기사 중생제도의 감로로써 미식을 삼고
해탈의 맛으로써 장을 삼아 삼승에 유희하시며(성문·연각·보살을 두루 열반의 언덕으로 이끄시며)
일체지에 머물러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도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을 받들어 칭송할제
신·구·의로써 헤아려 관찰하며(삼업이 한량없음을 스스로 살펴보며) 여실히 참회 하옵니다. 龍眼

"기근들때 작물되어 굶주림 제도케하고
질병 나타나면 약초되어 치료케 하소서"

★ 지상법석

# "불법을 아는 사람은

## 정영스님 〈갑사 주지〉



**약력**
- 42년 해인사에서 만공스님 은사로 득도
- 42년 해인사에서 안거이래 20안거 성만
- 67년 서울 천축사 주지역임
- 91년 마곡사 태화선원 조실

"두마리 진흙으로 만든 소가 다퉈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도다."

이 게송은 중국의 유명한 동산스님과 용산스님이 법거량을 하며 읊은 게송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거냐하면, 용산스님이라 하는 대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동산양개선사와 일사 백선사가 같이 용산선사를 뵈었는데 두분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용산스님이 "이 산에는 길이 없는데 어느곳으로 해서 오셨오"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동산스님이 말하길 "스님께서는 어느길로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용산스님이 답하길

"나는 운수납자가 아니니라. 바랑지고 다니는 사람이 운수납자지 나는 운수납자가 아니다" 그러니 동산스님이 다시묻길 "이 산에 머문지가 얼마나 됩니까?"하니 용산스님이 답하길 "나는 봄 가을을 지내지 아니했느니라. 봄 가을을 지냈어야 몇해니 얼마니 할 것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을 지낸일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말하니 동산스님이 말하길 "그러시다면 스님이 먼저 계셨습니까 산이 먼저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용산스님왈

"바다가 둘이 아니듯
저 부처나 이 부처나
남자나 여자나
한 마음의 법신입니다"

"모르겠다 산이 먼저인지 내가 먼저인지"

"어째서 모른다고 합니까" 용산스님 답하길 "나는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사람에 의해서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도리를 알아서 그 산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러니 용산스님이 답하길 "두마리 진흙소가 다퉈 싸우면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아무소식이 없소" 했답니다.

저간의 진리를 안다면 우주의 참된 이치를 알아가지고 우주의 진리인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산스님은 물을 건널때 문득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대오하였는데 말로는 표현 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의 경지를 깨쳤던 것입니다. 동산 대선사라는 분이 얼마나 생사를 자유자재하고 도력이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열반무렵에 동산스님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동산스님이 열반에 들자 제자들이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그러자 동산스님이 다시 일어나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법문으로 그만큼 얘기 했잖느냐.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닌데 왜 우느냐. 죽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슬퍼하니 법문을 더해야 되겠다"하고 다시 살아나 일주일간 제자들에게 법문하였습니다. 법문을 마치고, "너희들 정진에 힘써야 한다. 나는 다시 오지 않는다"하고 삭발목욕후 좌정한채로 열반에 들었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극락가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저 부처나 이 부처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같습니다. 통틀어서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바다는 하나지 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한마음의 바다요 법신인 것입니다.

내가 곧 석가여래요 석가여래가 아미타불이요 법신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내 나라에 나면, 고통없는 세계에 나게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극락은 있는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한다고 불교학자들이 마구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극락이 없다면 불교도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물질로 되어있지 않고 영체로 되어 있으며 죽어서도 몸이 가는게 아니라 영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극락인 것입니다.

그러면 극락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나한테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극락에 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부처님같이 숭앙받는 분


## 재단법인 一念奬學會 설립안내

본회에서는 부처님의 정법과 이나라 불교중흥을 위하여 25년간 크고 작은 불사와 대중포교를 위하여 일념으로 걸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장학법인을 설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알립니다.

**법인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 법인인가 : 사체 81721 — 906호
- 허가일자 : 1995년 10월 30일
- 대 표 자 : 양종윤(양선법장)
- 이 사 : 조인숙 이영채 임금옥 최금순 양명선 이순덕 신수현 하정옥 구양희 김정순 김영자 이수진 김민자 백복자 박순옥 하수영 하정선 이말선 박성빈 구금숙 이외조 조호자 이순이 최정화 이정혜 (무순)

**장학제정**

재단법인 一念에서는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군이 될 수 있는 신심이 돈독한 젊은불자(승가·재가)를 발굴,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사업을 제정.

— 다 음 —

1. 장학분야
   가. 대학생(7명) : · 불교학을 중심으로 선택한 자 · 인품과 성적이 모범이 되는 자 ·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년 1인, 1백만원
   나. 고등학생(10명) : 불교학생회에 참여하고 지도법사(교사)가 추천한 자—년 1인, 30만원
   다. 장애인 : 불자장애인 고등학생, 혹은 장애인 단체에서 불교에 활약중인 개인 및 단체—200만원
2. 수여일자
   • 수여일자 : 1996년 1월 중순(별도 개별통지) 본회 설립기념 행사시
   • 접 수 처 : 부산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 접수일자 : 1995년 12월 20일까지
   • 문 의 처 : (051) 464-0561

1995년 11월 일

재단법인 一念장학회



재가자를 위한

## 동계 위빠사나 명상 수련원 개설

보덕사에서는 위빠사나 명상수련원을 개설합니다. 뜻 있으신 분은 다만 며칠이라도 동참하여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안 내**

- 기 간 : 95년 12월 27일 ~ 96년 1월 15일
- 장 소 :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강원도 영월군·읍)
  ※교통편 • 서울 동서울—영월 3시간 소요
  • 기차 청량리—영월 3시간 소요
  • 영월 터미날—보덕사 택시기본료
- 준 비 물 : 세면도구, 모포
- 동 참 금 : 1일 1만원
- 지도법사 : 보덕사 주지 현오스님 (미얀마 72일 저자)
- 주의사항 : 단체 이틀전 신청 시간엄수, 오후분식, 묵언
- 문 의 처 : (0373) 374-3169

**시 간 표**

| | |
|---|---|
| 4시 | 예불 |
| 6시 | 아침공양 |
| 8시 | 경행 |
| 9시 | 좌선 |
| 10시 | 사시불공 |
| 11시 30분 | 점심공양 |
| 1시 | 경행 |
| 2시 | 좌선 |
| 3시 | 경행 |
| 4시 ~ 5시 | 좌선 |
| 6시 | 저녁예불 |
| 7시 | 경행 |
| 8시 | 좌선 |
| 9시 | 취침 |

대한불교 조계종 보덕사

㊀ 230-80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 12리 1110 / 전화 : (0373) 374-3169